

전북 중기 장애인 고용확대 다짐

중진공, 장애인고용공단 전북, 장애인의 날 맞아 다짐식 공공기관 ESG 경영 위한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서부권경영지원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짐식을 개최했다.

이 날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행사는 중진공 황성익 전북지역본부장 김지홍 전북서부지부장, 공평대 서부권경영지원처장,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짐식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장애인 고용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지원제도와 장애인 의무 고

용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국가·자치단체 및 총 근로자수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분야 3.6%, 민간 기업에 3.1%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과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비용 지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 행사는 중진공에서 운영중에 있는 국민참여단(중소기업, 유관기관, 시민 등 대내외 중진공 이해관계자)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중진공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안내, 장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서부권경영지원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짐식'을 개최했다.

인 채용기업 대상 자립·연수 등 연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유나 팀장(063-210-9911), 정혜미 과장(991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영아 기자

농협은행 'zgm.고향으로' 카드 출시 기념행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20일 1/4분기 경영성과 분석회의에서 사무소장들과 함께 'zgm.고향으로(지금 고향으로)' 카드 출시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NH농협은행이 지난 4월 5일에 출시한 고향사랑 기부 특화 카드로 소비장소에 있는 카드를 매개로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고 더 많은 고객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고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지역가맹점 이용 시 최대 1.7% 적립되며 지역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에 지역명 명기가 가능하고 이용금액의 0.1%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공익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익기금 자자체는 최초 카드발급 시 지정할 수 있으며, 조성된 공익기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특화된 zgm. 고향으로' 카드 출시를 고향사랑 범업 조성과 카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zgm. 고향으로' 카드 발급에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경진원, 중기·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열어

전북도와 전북경제성장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이현웅)은 20일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상담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전라북도 출자·출연 등 25개 기관들과 도내 7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금년에는 참가기업 및 기업 참여 확대로 신규 공공부문 시장의 폭을 넓혔다.

이번 행사는 기관별 수요품목 사전 조사를 통한 맞춤형 1:1 상담 진행으로 효율성을 높였으며, 참가기업의 영상제작·상영, 카탈로그 배포, 제품전시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경진원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상담회를 진행해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웅 경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에 힘쓸 예정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발판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2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개인부문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농협손보 연도대상 개인부문 '역대 최다'

37명이 수상... 최윤임 동김제농협 지점장, 10년 연속 수상 '화제'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2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개인부문 시상식이 열렸다.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책보험을 비롯해 장기보험, 일반보험까지 모든 손해보험 부문에서 농업인 실익과 고객만족 업적을 달성한 우수 농협인과 임직원이 수상하는 상이다.

전북 수상자는 무려 37명으로 역대 최다인원이 수상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10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하게 된 동김제농협 최윤임 지점장이 화제가 됐다.

이외에도 5연속 이상 수상한 구천동농협 유영철 과장(6회), 진안농협 임미정 과장(5회), 익산농협

유미숙 과장(5회)도 눈길을 끌었다.

김현미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괄장은 "수상자들은 전북농협의 대내외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오로지 고객과 농업인을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전북총국도 우수 직원 양성 명가로서 농협 우수 직원 발굴 및 고객과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보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금상 = 임미정(진안농협), 김미진(순창농협)

▲은상 = 유정미(진안농협), 이은선(황토농협), 최윤임(동김제농협)

▲동상 = 김혜영(봉동농협), 안영희(황토농협), 전경아(순창농협), 서지

혜(북전농협), 신미영(장계농협), 서종호(구천동농협)

▲우수상 = 최정인(장계농협), 이기복(장계농협), 허현상(순창농협), 오준영(전주농협), 윤동호(일반보협, 전주농협)

▲헤이름상 = 유영철(구천동농협), 류제혁(전주농협), 김미희(순창농협), 홍성운(전주농협), 양옥자(진안농협), 김민희(오수과농협), 유미숙(익산농협), 김은주(변신농협), 이현숙(화산농협)

▲신인상 = 성연옥(장수농협), 최귀문(전주원예농협), 임연숙(순창농협), 유문숙(장계농협), 우주희(장계농협), 김희권(진안농협), 전장미(구천동농협), 박선정(북전농협), 양세리(진안농협), 박인규(전주농협), 이성숙(전주농협)

▲특별승진전형 = 유태형(정읍농협)

/이영아 기자

올 1차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선정

승원 등 4개 혁신기업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정길음)은 23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공모 결과 도내 4개 혁신기업의 혁신제품이 시범 사용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1차 사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주식회사 승원, 유현회사 아카데미, 주식회사 퍼지케이비(쥬그론으로 각각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충남 예산에서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범 사용할 주식회사 승원(전북 김제시 소재)의 0.5um~10um 카트리지를 필터를 통해 수돗물에 이물질을 여과하는 정밀여과 장치'는 내장된 필터로 수돗물

내 녹물 증감속, 유충 등의 이물질을 여과시키는 제품으로, 구조가 간단하며 고장률이 적고 설치가 간단하며 전 기동력이 필요치 않은 제품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시범 사용할 유현회사 아카데미(전북 전주 시 소재)의 3단 충격흡수식 가드레일 지지 지지력 보강재는 지주와 결합되어 차량 충돌 등의 충격에 의해 지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의 추락 및 전복사고 등의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품으로, 시공과 유지 보수 또한 편리하게 개량된 제품이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사용할 주식회사 퍼지케이비(전북 전주 시 소재)의 탄소발열체를 활용한 친환경 전기 난방 패널 탄소전열보드는

탄소발열체를 활용해 내구성이 강하고 소비전력이 낮으며 방수·방부·흡음 효과 또한 우수한 제품이다.

충남 논산에서 시범 사용하는 (쥬그론(전주시 소재)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수처리장치'는 플라즈마를 이용, 산화력이 강한 활성종 및 OH라디칼을 다량 생성하여 폐수를 산화하여 정화하는 장치로 TOC 저감 능력 및 살균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다.

정길음 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도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람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20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북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전북 인재육성 상호협력체계 구축

전개공, 전북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인재육성 협약 체결 임대주택 거주 소외계층 입주민 자녀 위한 장학금도 전달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0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북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도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 인재육성 도모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김학권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장학금 3,000만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입주민 자녀의 장학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은 5월중 전주평화 및 익산송화 지인리(국민임대주택) 거주 입주민들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등 50여명에게 50~100만원씩 지급된다.

최정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 인재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도 산하기관과 힘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가 등록금 부담과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아 기자

LX, 동반성장 '최우수'

공간드림센터 등 ESG경영 입증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ESG 경영 선로 이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결과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13개(공기업 36개, 준정부형, 기타형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발표했다. LX공사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평가됐다.

LX공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간정보 분야 벤처투자펀드(250억 규모)를 조성해 고유가·고금리·고물가라는 3H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또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윈윈을 위한 LX공간드림센터(서울)를 전북에 추가 개설, 사업자금·입주공간·전문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전주에서 시작된 디지털트윈 모델을 계기로 환경·교통·재난재해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

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LX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관심을 모았다.

더 나아가 ESG 도입이 어려운 협력사의 1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표준가이드 개발 및 제공,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했다. 또 내부 직원 20여 명을 협력사에 파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LX공사는 2022년 벤처창업진흥원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정책 및 집행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유통을 위해 카페, 세차 다화용기 제작 사업단 설립 등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2개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동반성장 생태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혁신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람 기자

전개공,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업무효율성 제고

ChatGPT 교육 진행... 개편·원리부터 활용법까지 교육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다양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ChatGPT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ChatGPT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ChatGPT의 개념과 원리 △ChatGPT 업무 적용 사례 △실제 업무에서의 ChatGPT 접근법 △데이터 분석 위한 ChatGPT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전북개발공사의 각 부서 팀장들이 교육에 참여해 부서원들에게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뉴스에서 접했던 ChatGPT와 인공지능 AI의 실제 업무 적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급변하게 될 미래가 기대된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조직 내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 혁신을 통해 스마트 공기업 비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